

보도시점 2025. 2. 27.(목) 12:00 배포 2025. 2. 27.(목) 09:00

2024년 대외채무는 전년 대비 감소했으며,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수준

- 전체 대외채무 규모는 6,700억불로 전년말(6,725억불) 대비 △25억불 감소 -
- 외채 건전성 지표는 다소 악화되었으나,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 유지 -

2024년말 대외채무는 6,700억불로 전년말(6,725억불) 대비 △25억불 감소(△0.4%)하였다. 만기별로 보면 단기외채(만기 1년 이하)는 1,469억불로 전년말 대비 +62억불 증가하였고, 장기외채(만기 1년 초과)는 5,232억불로 전년말 대비 △87억불 감소하였다. 부문별로 구분하면 중앙은행(+3억불), 기타부문(비은행권·공공·민간기업, +117억불)의 외채가 증가한 반면, 정부(△94억불)와 은행(△52억불)의 외채는 감소하였다.

한편, 대외채권은 1조 681억불을 기록하며, 전년말(1조 445억불) 대비 +236억불 증가(+2.3%)하였다.

대외채권과 대외채무의 차이인 순대외채권은 3,981억불로 전년말(3,720억불) 대비 +261억불 증가(+7.0%)하였다.

단기외채/총외채 비중('23년말 20.9% → '24년말 21.9%), 단기외채/보유액 비율('23년말 33.5% → 24년말 35.3%) 등 건전성 지표의 경우, 전년말 대비 다소 상승했으나 예년에 비해*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. 아울러, 국내은행의 외채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(LCR, Liquidity Coverage Ratio)은 2024년말 기준 171.8%로 규제비율인 80%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.

* 직전 5개년 평균 : (단기외채/총외채 비중) 27.5% (단기외채/보유액 비율) 37.1%

다만, 미국 신정부 정책 과급영향 및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, 지정학적 불안 등 영향으로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,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대외채무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.

담당 부서	국제금융국	책임자	과 장 김희재 (044-215-4710)
	국제금융과	담당자	사무관 윤현곤 (gonnnn@korea.kr)

참 고

대외채무 현황 : 기말기준

구분	2019	2020	2021	2022	2023	2024	전년비
총 외채(억불)	4,707	5,506	6,307	6,733	6,725	6,700	△25
단기외채(억불)	1,355	1,601	1,651	1,740	1,407	1,469	+62
장기외채(억불)	3,353	3,906	4,656	4,993	5,319	5,232	△87
단기외채/총외채(%)	28.8	29.1	26.2	25.8	20.9	21.9	+1.0%p
단기외채/보유액(%)	33.1	36.1	35.7	41.1	33.5	35.3	+1.8%p
대외채권(억불)	9,572	10,344	10,825	10,351	10,445	10,681	+236
순대외채권(억불)	4,864	4,838	4,519	3,618	3,720	3,981	+261

※ 통계 출처: 2024년 국제투자대조표(잠정) (한국은행, '25.2.27.)